

“처음 해보는 폰수 역 이렇게 재밌을지 몰랐어요”

SBS 드라마 ‘언니는 살아있다’ 장서희
제웃을 입은 듯 자연스러운 연기 인기
‘구은재’ 패러디 등 웃음 끊이지 않아



“아릴 때부터 연기를 했지만 폰수 역할이나 코믹한 역할은 이번이 처음이예요. 너무 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드디어 하게 된 코믹 연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요즘 행복합니다.”
SBS TV 토요드라마 ‘언니는 살아있다’에서 ‘공주병’을 심하게 앓다가 서서히 정신을 차리고 있는 ‘민들레’를 연기하는 장서희(45)를 최근 인터뷰했다.
연기 인생 36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역할을 맡은 장서희는 왜 이제야 ‘폰수’가 됐을까 의아할 정도로 ‘민들레’를 제대로 요리해내고 있다.
◇귀여운 아역→착한 친구→복수의 화신... 그리고 ‘폰수’=장서희는 어린 시절에는 깨물어주고 싶은 만큼 귀엽고 예쁜 아역 배우였고, 20대 때는 착하고 유순한 이미지였다. 주로 여주인공의 친구 역할이었다. 그러다 서른이 되던 2002년 만난 MBC TV ‘인어 아가씨’는 커다란 전환점이 됐다. ‘인어 아가씨’의 ‘은아리영’은 장서희가 ‘만년 조연’에서 ‘주연’으로 올라서게 한 작품이자, 그가 기존의 이미지를 외장창 깨고 ‘복수의 화신’으로 거듭나게 했다.
이후 장서희는 중국도 뒤흔든 ‘아내의 유혹’(2008)의 ‘구은재’로 다시 한번 ‘복수의 화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최근까지도 독하고 강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다가왔다.
그렇던 그가 지난 4월15일 시작한 ‘언니는 살아있다’에서 다시 한번 대변신을 감행했다. 나이 먹도록 자기 손으로 뭐하나 해본 적이 없는 공주병 환자에 이기적인 폰수 ‘민들레’로 변신한 장서희는 ‘은아리영’과 ‘구은재’를 단번에 잊게 만들었다.
“(독한 역할 때보다) 훨씬 편하죠. 폰수 짓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제가 평소 못해보던 ‘짓’들을 하니까 정말 재밌었어요.(웃음) 너무 웃겨서 NG가 수시로 나는데, NG 때문에 다시 찍을 때도 웃음이 터져요. 요즘에는 ‘구회장’ 역의 손창민 선배님과 자주 붙는데 손창민 선배님 표정만 봐도 너무 웃겨서 죽겠어요. 웃을 일이 많으니까 행복해요.”
‘민들레’는 이렇게 웃기지만 ‘언니는 살아있다’는 사실 어둡고 폭력적인 이야기를 많이 안고 있고, 그 역할을 오운아, 다습, 손여은 등이 짊어지고 있다.
“안 그래도 다습이, 운아, 여은이가 안쓰러워요. 제가 그런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감정적으로 힘든지 알거든요. 그럼에도 동생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대견하고 예뻐요.”
◇‘김순옥 작가님께 너무 고맙죠’= ‘언니는 살아있다’는 장서희와 ‘아내의 유혹’을 성공시킨 김순옥 작가의 작품이다. 두 사람은 두번의 만남 모두 ‘성공’으로 만들었다.

“예전부터 폰수 역이 하고 싶다고 늘 얘기해왔지만 기회가 안 왔어요. 강한 역할만 들어왔죠. 그런데 이번에 김순옥 작가가 민들레 역을 한번 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웃긴 게, 막상 또 그런 역할을 하자고 하니 걱정이 드는 거예요. 잘못하면 밋밋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김 작가가 ‘나를 믿고 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들길 너무 잘한 거죠.”
두 사람은 ‘언니는 살아있다’에서 ‘아내의 유혹’의 ‘구은재’를 대놓고 패러디하기도 한다. 이런 점이 ‘언니는 살아있다’에 쏠리는 ‘막장’ 비난을 어느 정도 희석시킨다.
“김 작가가 스스로 ‘아내의 유혹’을 패러디하는 것도 재밌었어요. 구회장(손창민 분)이 ‘민들레’에게 끌리는 게 자신의 죽은 아내랑 똑같이 생겨서잖아요? 제가 민들레랑 구회장의 죽은 아내, 1인2역을 펼치는데 곧 ‘아내의 유혹’ 때처럼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나와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작가가 이미 컷회에서 민들레의 대사로 드라마 작가가 ‘당신 대본은 뭐가 대단한지 아니. 점 하나 찍었는데 몰라보는 게 말이 되냐. 가서 연필이나 더 까고 와라’는 셀프 디스를 하기도 하셨고요.(웃음) 작가가 ‘막장’ 논란을 패러디로 정면 돌파 하시는 것 같아요.”
◇배우 역할도 처음... ‘저는 공주 아니었어요’= ‘민들레’는 배우다. 장서희가 배우 역할을 연기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심지어 민들레는 장서희처럼 엄마가 매니저를 맡아 어린시절부터 연기를 한 아역 배우 출신이다. 하지만 실제의 장서희와 민들레는 전혀 다른 캐릭터다.
“저도 아역 때부터 엄마하고 다녔지만 엄마 속을 썩이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었죠. 엄마랑 저랑 촬영장 다니면서 재밌게 일을 했어요. 배우 역할이 처음인데,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배우의 상징성이라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제 실제 직업을 연기하다 보니 더 신경이 쓰여요.”
‘아내의 유혹’이 중국에서 터지면서 한류스타로서 중국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장서희도 ‘사드 여파’로 지난 1년 중국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
“요새 중국 쪽에서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행사 등 스케줄 문의를 해와요. 분위기가 서서히 풀리는 게 아님이 실내요. 그동안 중국 활동은 정말 운이 좋았죠. 한류스타로 사랑받아 감사했어요.”



최단기간 100만명 돌파, 최고 오프닝 스코어 등 기록
다큐멘터리 영화 ‘노무현입니다’가 극장가에 돌풍을 일으키며 개봉 열흘 만에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
3일 영화사 폴에 따르면 ‘노무현입니다’는 개봉 열흘 만에 이날 오후 3시 관객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다큐 영화 사상 최단기간 100만 돌파 기록이라고 제작사 측은 전했다. 역대 다큐 영화 최다 관객 동원작인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개봉 18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25일 간판을 내건 이 작품은 개봉 첫날 관객 7만8397명을 동원하며 다큐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고, 개봉 3일 만에 손익분기점인 20만 관객을 돌파했다.
또 개봉일부터 6일 연속 한국영화 흥행 1위를 지키는 등 다큐 흥행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제작사 측은 전했다.
개봉 첫날 580개 스크린에서 상영된 이 작품은 흥행에 힘입어 개봉 3일째 스크린이 775개까지 늘어났으며, 지난 2일에도 598개를 유지했다.
영화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2002년 치러진 새천년민주당 국민경선에서 지지율 2%로 시작해 대선후보의 자리까지 오르는 과정을 되짚는다. 당시 노무현 캠프의 자원활동가였던 유시민 작가, 대선 당시 노무현 캠프의 참모였던 안희정 현 총남지사,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현 대통령까지 39명의 진심이 담긴 인터뷰를 통해 ‘인간 노무현’을 이야기한다.
‘노무현입니다’가 역대 다큐 최고 흥행작인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누적 관객 480만1873명)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관심이 있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경우 개봉 초반부터 흥행에 성공한 이 작품과 달리 개봉 초반 하루 관객 수는 1만~2만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일순이 나면서 관객이 점차 늘어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고 하루 관객 수가 29만 명을 넘어서는 등 장기 흥행에 성공했다.
배급사 관계자는 흥행 비결에 대해 “정지인 노무현이 아닌 ‘인간 노무현’의 이야기로 관객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선사한 것 같다”며 “‘노무현’이라는 콘텐츠의 힘인 것 같다”고 말했다.

TV 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스페셜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파수꾼(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재)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재) 55 감성톤 고맙습니다(재)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쌤. 마이웨이(재)	00 MBC 정오 뉴스 2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KBC특집 파워인터뷰
1	00 넷트워킹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빛고를 행복이카데미		10 헬로키키 아하! 동물탐험대 2 55 파워배틀 와치카(재)	35 위대한 유산 55 닥터 365
2	50 콘서트 필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재)	25 똑?똑! 키즈스쿨 55 내친구 마미카	00 뉴스브리핑
3	30 공감다큐, 사람 50 팔도발상 스페셜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유치원	25 황금주머니(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00 MBC 뉴스M 50 MBC 스포츠 2017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8강전	00 토크콘서트 화동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특공대 (재)		00 SBS 오 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엽기적인 그녀(재) 45 날씨와 생활 제 50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아리러다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우기	50 일일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별벌머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파수꾼 한번에 돌아보기	
10	00 가요무대	00 쌤. 마이웨이	00 파수꾼	00 엽기적인 그녀
11	00 KBS 뉴스라인 40 월요기획 <밤 이상의 밤, 학교급식의 변신>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오지의 마법사	10 초인가족 2017
12	30 걸어서 세계속으로 (재)	35 세상의 모든 다큐	50 MBC 뉴스 24	20 나이트라인 50 전국 TOP 10 가요쇼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히말라야 생해맞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세상에 나온 개는 없다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죽석 동치미와 갯잎김치>
06:00 한국여행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신다
07:30 로보가 폴리 07:45 총동! 슈퍼원스 08:00 당동당 유치원 1~2 08:30 플라워링 하트 08:45 부릉!부릉! 부루미즈 09:00 방귀대장 뽕뽕이 09: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2:40 평등채널(재) 12:45 과학 다큐 비온드 (재) 13:40 엄마를 찾지마(재)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5:00 요술 상자 15:05 내 친구 아서 15:20 우주탐험가 셋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코코콩 3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두다다콩(재) 16:45 당동당 유치원 1~2(재) 17:15 엄마 개투리 17:30 플라워링 하트(재) 17:45 호기심나라 오기도 18:00 생방송 퓌! 퓌! 퓌! 19:00 강철소년 파이아로보 19:30 EBS 뉴스
	19:55 다문화 고부 열전 20:50 세계테마기행 <원색의 유혹 서아프리카 1부 북대서양의 진주 조일파디우트> 21:30 한국기행 <명당이 살고 싶다 1부 베짱이들의 천국> 21:50 EBS 다큐 프라임 <관중 밀리미터의 세계 -위대한 생존 전략> 22:45 엄마를 찾지마 23:35 가질남녀 24:25 세상의 모든 범죄 24:30 세계의 드라마 <에이 워드 5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5일 (음 5월 11일 癸亥)

子	48년생 자신에게 전혀 맞지 않는 바를 억지로 행하려 하니 매우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60년생 그동안의 성과가 안정 계도에 진입하리라. 72년생 무난한 조짐이다. 84년생 자신도 모르는 할에 의해서 좌우되리라. 행운의 숫자 : 95, 35	午	42년생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54년생 현상을 동반할 가능성이 희박하니 무시해도 된다. 66년생 열렬히 환영받게 될 것이다. 78년생 혼란스럽다가 차츰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국면이다. 90년생 성사의 기미를 띠고 있는 판세이다. 행운의 숫자 : 56, 34
丑	49년생 개리끼리 어울리는 것이 서로 편하다. 61년생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니 기대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73년생 부담을 안고서라도 실행해야 할 판국이다. 85년생 불타오르는 기세이므로 잘 살펴봐야겠다. 행운의 숫자 : 70, 32	未	43년생 활용이 가능해지나니라. 55년생 뻥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딜레마에 빠질 수 있으니라. 67년생 불변하겠다. 79년생 관련 지어 생각해야 해답을 도출할 수 있다. 91년생 자신과의 약속을 이행함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20, 27
寅	50년생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할 때다. 62년생 뜬구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현실로 돌아오라. 74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이니라. 86년생 여러 번 시도하여도 아무런 능률도 이루지 못하니 낙심하겠다. 행운의 숫자 : 66, 21	申	44년생 어렵잖아서 행해도 허등의 지장이 없겠다. 56년생 작은 노력에도 쉽게 이루어지는 행운이 따른다. 68년생 아주 가까이 에 와 있으니 대응할 준비를 하자. 80년생 공을 들여야 효과를 볼 수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54, 82
卯	51년생 지출은 투자가 될 것이니 아껴워하지 말라. 63년생 소신을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면 호평을 받게 될 수다. 75년생 잠 못 이루면서 고민하리라. 87년생 주변에 제 이익만 꾀하려는 이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88, 07	酉	45년생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라. 57년생 항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니라. 69년생 역습을 당할 수도 있으니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아니 되겠다. 81년생 성사의 기미를 띠고 있는 판세이다. 행운의 숫자 : 05, 31
辰	52년생 전방위적인 활동의 결과가 확실일로 놓여 있다. 64년생 다수인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양태이니라. 76년생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88년생 어이없어서 말문이 꼭 막힐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8, 94	戌	46년생 본디의 것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이루리라. 58년생 공동 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겠다. 70년생 도약하고 있는 단계이니 조금만 더 힘써 보라. 82년생 바빠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판이겠다. 행운의 숫자 : 49, 16
巳	53년생 상호 변환할 수 있다면 효과는 배가 되리라. 65년생 파격적인 방법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77년생 희망의 아침이 밝아 오니 즐겁게 맞이하자. 89년생 마음만 앞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행운의 숫자 : 59, 76	亥	47년생 활발한 움직임이 보인다. 59년생 김홍이 교차하면서 부침이 심할 수도 있다. 71년생 돈을 보고 도가침을 흘리고 있는 이치이다. 83년생 겉모습과는 달리 수용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90, 4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